

# 이집트 민주화 혁명에서 SNS와 소셜 저널리즘:

페이스북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설진아\*

소셜 미디어가 뉴스정보를 생성, 유포시키면서 부상한 소셜 저널리즘은 시민 저널리즘의 일환으로서 시민들이 SNS를 통해 뉴스정보를 생성하는 새로운 유형의 정보수집과 보도 방식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우리는 모두 할레드 사이드이다>라는 특정한 페이스북 페이지가 이집트 민주화 혁명과정에서 특정 시위기간 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뉴스정보를 얼마나 생산하고, 공중과 상호작용을 했으며, 소셜 저널리즘 양식을 통해 뉴스를 전달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는 모두 할레드사이드이다>페이지는 일주일 동안 총 331건의 포스트를 통해 시위관련 스트레이트 뉴스를 가장 많이 생산했으며, 동영상과 사진, 만평보도가 텍스트 기사 만큼 비중있게 다뤄졌다. 특히 동영상의 경우는 대부분 연결링크를 소개하고 있어 소셜 저널리즘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었다. 네트워크 저널리즘을 반영하는 외신보도인용은 대부분 스트레이트뉴스에 해당되었는데 알자지라와 영국의 가디언 신문이 주로 인용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정치적 격동기에 처한 사회에서 제도권 언론이 통제 받을 때 SNS는 현실을 반영하는 뉴스나 정보를 생성, 확산시키는 저널리즘 미디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었다.

주제어: SNS, 시민 저널리즘, 소셜 저널리즘, 네트워크 저널리즘, 페이스북(Facebook)

## 1. 문제제기

소셜 미디어가 저널리즘을 변화시키고 있다. 댄 길모어(Dan Gilmore, 2005)가 일찍이 역설한 것처럼, 새로운 미디어 생태계에서 시민들은 기자에게서 일방적인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서로간의 대화를 원하며, 점점 더 대안적인 정보원을 인터넷 언론에서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 동안 적자에 허덕이는 많은 신문사들은 인쇄신문을 접고 온라인만으로 뉴스 전달을 통해 더 많은 독자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권위자로 알려진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는 2만 6천 명의 엘리트 독자를 유지할 수 없어 2009년 3월 27일자로 웹으로만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 예상을 초월하는 독자층과 그들로부터의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 또 발행부수 110만의 <뉴욕타임즈>가 닷컴 웹사이트(nytimes.com)로는 1억 이상의 히트수와 2,500만 명이나 되는 고유 독자를 확보함으로써 국제지로 승격되었으며,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post.com)도 온라인 서비스 이후 전국지이자 국제지가 되었다(오택섭외, 2009, 120~121쪽).

인터넷 보급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언론사들은 인터넷 사이트로의 확장을 진행하고 있다. 이제는 온라인 신문으로만 존재하면서 저널리즘 활동을 벌이는 언론사들도 증가하고 있다.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가상공간에서 언론지형을 넓히고 뿌리를 내리려는 온라인저널리즘(online journalism)은 속보성과 현장성, 상호작용성, 비선형 구조, 충분한 정보저장 능력, 멀티미디어 정보제공차원에서 기존의 전통 저널리즘과 구별되는 장점을 갖는다. 온라인 신문만으로서 성공한 미국의 허핑턴포스트(The Huffington Post)는 이러한 장점들을 활용해 블로그<sup>1)</sup>를 뉴스사이트에 포함시키고, 저비용, 고효율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교수(jas@knou.ac.kr)

구조로 뉴스를 생산하는 차별화 전략을 감행하였다(조영신, 2011). 허핑턴포스트는 블로그를 뉴스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허핑턴포스트 소셜뉴스(HuffingtonPost Social News)>를 신설함으로써 소셜 미디어와 연계되는 저널리즘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였다.

국내 미디어 생태계 역시 포털 사이트와 소셜 미디어를 통한 뉴스소비가 뉴스유통이 가속화되면서 인터넷 뉴스시장은 신문사, 방송사, 통신사 등의 제휴와 경쟁으로 급격히 성장하였다. 이제 웹은 오프라인 신문을 발행할 능력이 없는 언론사들이 뉴스를 전달할 유일한 유통채널이 되었으며, 소셜 네트워킹이 활성화되고 있는 사이버공간에서 전통 매스미디어들이 자사의 브랜드 제고를 위해 각축을 벌이는 장이 되었다.

온라인 저널리즘 환경에서 매스미디어의 전통적 게이트키퍼(gate-keeper) 역할은 점차 위축되고 있다. 그 동안 일방적인 뉴스에 익숙했던 공중들이 단순히 뉴스정보를 수용하기 보다는 포털 사이트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다양한 뉴스정보를 선택, 비교하고, 더 나아가 소셜 미디어를 통한 뉴스기사 생산에 직접 참여하기까지 한다. 신문사들의 온라인 뉴스 사이트보다 대형 포털 사이트의 뉴스 이용자가 많은 이유도 포털이 제공하는 다양한 뉴스서비스들과 이에 대한 수용자들의 피드백 등이 자연스럽게 연동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다양한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온라인 뉴스 커뮤니티들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같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s; 이하 SNS)와의 연동으로 뉴스의 폭발적인 팽창을 가져왔다.

소셜 미디어가 뉴스정보를 생성, 유포시키면서 부상한 소셜 저널리즘(social journalism)은 이러한 맥락에서 탄생하였다. 소셜 저널리즘은 시민 저널리즘(civic journalism)의 일환으로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 시민들이 뉴스정보를 생성하는 새로운 유형의 정보수집과 보도 방식을 의미한다. 소셜 저널리즘은 시민저널리스트들의 활약에서 시작되었다. 그들은 시위 현장이나 재난재해 사고 현장에서 생생한 정보와 사진들을 소셜 미디어상에 게재하고 전통 언론매체들과는 다른 시각에서 뉴스 기사들을 전달한다. 소셜 저널리스트를 규정하는 특징은 무엇보다 감시 역할이나 이슈에 대한 지지 역할이다. 그 동안 사회의 ‘감시견(watchdog)’ 역할을 해오던 저널리스트가 오히려 수용자로부터 감시를 당하게 된 것이다. 공중은 더 이상 미디어를 경외하지 않으며, 저널리스트들은 점점 더 단순 정보제공자가 되어가고 있다(Nell, Ward & Rawlinson, 2009). 이처럼 시민들의 뉴스 이용행태가 변화하면서 앞으로 소셜 미디어의 장점들을 살리지 못하는 매스 미디어들은 사이버공간에서 그 브랜드가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소셜 저널리즘의 또 다른 요소는 네트워크 효과로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호 소통하고 협력적으로 뉴스 콘텐츠를 생산한다는 점이다. 편집자들은 여전히 정보와 그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중요하지만 소셜 저널리즘은 민중의 역동성(dynamics)과 정보의 속도(velocity)에 의해 뉴스기사들을 온라인상에서 계속해서 생산하고 있다(Lewis, 2009). 북아프리카 지역의 대표적인 민주화 시민혁명으로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과 이집트의 ‘페이스북 혁명’ 등은 소셜 저널리즘이 어떻게 정치혁명에 도화선이 되었으며, 소셜 네트워크 효과를 발휘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기존 미디어가 검열과 통제로 시위를 테러리즘으로 몰고 갈 때, 페이스북에서 시민들은 사건과 관련된 사진이나 의견, 영상을 올리고 정부의 검열을 우회할 수 있었다.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이 매일 일어나는 정치

1) 블로그는 이라크전쟁 등을 통해서 언론으로서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2004년부터 주류매체로 부상했다고 평가받는다(최민재·양승찬, 2009).

시위에 관한 자료나 블로그 기사, 선언과 영상정보, 항의시위의 경로 등을 실시간으로 전달, 기록하며 업로드 시킴으로써 뉴스매체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공유되었던 것이다(John, 2011/2011, 115쪽).

정부의 부패나 시민들의 항의시위에 관련된 모든 정보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입수될 수 있었던 점은 페이스북이 미디어로서 시민들의 신뢰를 얻게 된 계기가 되었다. 페이스북이 실제로 튀니지와 이집트의 시민혁명을 성공시키는데 어느 정도의 역할을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검증된 연구는 없다. 하지만 두 국가의 젊은 층들이 독재정권 붕괴에 적극 나설 수 있었던 근저에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각종 소셜 미디어와 모바일 인스턴트 메시징(Mobile Instant Messaging)과 같은 실시간 미디어를 통한 시위정보의 공개와 투명화 영향이 컸으며, 궁극적으로 SNS가 시민들이 상호 연대하고 동원되는데 이바지한 뉴스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집트 민주화 과정에서 시민 저널리즘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어떻게 뉴스 정보를 생산하고, ‘소셜 저널리즘’이라는 새로운 언론보도 양식을 창출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분석을 통해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먼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가운데 ‘페이스북 혁명’이라 일컫는 이집트 민주화 과정에 기여한 페이스북 페이지 사례를 분석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집트 민주화 혁명과정에서 2011년, 1월 25일 대규모 반정부 시위 이후, 시위정보를 이집트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데 기여한 페이스북 페이지, “우리는 모두 할레드 사이드(We are all Khaled Said)”라는 페이지를 중심으로 소셜 저널리즘의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논의

### 1) 시민 저널리즘과 SNS의 미디어 역할

시민 저널리즘(Civic Journalism) 혹은 ‘참여 저널리즘(Participatory Journalism)’은 시민이 뉴스나 정보를 수집, 보도, 분석, 전송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참여의 의도는 민주주의가 필요로 하는 독립적이고 신뢰성 있으며 정확하고 폭넓은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Bowman & Willis, 2003). 시민 저널리즘의 대표적인 특징은 뉴스의 생산과 전파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의제 설정기능도 일반 시민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언론의 글쓰기 권력이 뉴스 소비자들에게 이동되는 이러한 현상은 일부 주류 언론의 정형화되고 편향된 보도 행태를 바로잡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가 인터넷 환경에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 표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민 저널리즘이 뉴미디어의 새로운 기술로 더욱 활성화 된 데는 개방, 참여, 공유, 소통 등의 웹 2.0 기술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 특히 개인과 개인의 관계망에 기반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는 이용자들이 그들의 생각과 관심사, 일상적인 활동과 사건들을 공유하게 해준다(Newson, Houghton & Patten, 2009). SNS는 또 사적 공간에서 이용자들이 공적인 뉴스와 정보들을 공유, 소통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망을 더욱 확장시키고 있다. SNS 이용자들은 무엇보다 정보를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확산하는 주체로서 활동한다. 예를 들어 개별 페이스북과 트위터 이용자가 생성, 전달한 정보는 피라미드 형태의 정보망을 타고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다. 실제로 튀니지와 이집트의 민주화 혁명을 촉발시킨 위키리크스(WikiLeaks)와 페이스북, 트위

터 등의 역할은 시민들의 결의나 행동에 관해 생생한 뉴스 정보를 전지구적으로 확산시켰으며, AP, BBC, 가디언(The Guardian)이나 알자지라(Aljazeera)와 같은 전통매체와도 정보를 공유하면서 정치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기여하였다. 튀니지와 이집트의 시민혁명 과정에서 위키리크스와 페이스북은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에 대한 시민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The Telegraph, 2011.2.11; Financial Times, 2011.2. 9; John, 2011/2011).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발생한 시민혁명에서 SNS의 정치매개 역할을 연구한 조희정(2011)은 “중동혁명에서 SNS는 소셜네트워크화와 융합네트워크, 집합적 여론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정보행위자이자 의제 매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시민들의 강한 유대감을 증폭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는 “SNS는 혁명의 조건이 아니라 혁명의 가속화 조건이므로 SNS의 정치매개적 사용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p.309). SNS의 다차원적인 특성에 따라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각기 정보를 생산, 전달하는 방식이 크게 다르지만<sup>2)</sup> 둘 다 스스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는 능동성과 모바일 연동을 통한 속도경쟁이 가능하여 기존의 웹 환경과는 차별되는 쌍방향 소통의 주체로 부상하였다(조희정, 2011).

시민 저널리즘의 주요 특성 중 하나는 지식과 정보의 공유를 통한 ‘정보의 투명화와 민주화’ 가치를 중요시하는 것이다. 전통미디어와 소셜 미디어의 관계를 탐구한 국내 한 연구에서 언론사들은 트위터를 비롯한 SNS가 몇몇 국외에서 발생한 혁명 등에서 정보 확산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시민들의 사회참여를 동원하였다는 점과 민주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했음을 높이 평가하였다(황유선·이연경, 2011, 185~186쪽).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소셜 저널리즘의 가능성을 보여 준 여러 가지 국제 사건들은 많지만, 특히 모든 방송과 인터넷을 차단당한 이란사태<sup>3)</sup>의 경우나, 튀니지 혁명과 이집트 혁명은 대표적인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이 이웃나라로 확산되기까지는 기존의 신문과 방송과 같은 대중매체가 아니라 블로그와 페이스북, 위키리크스, 트위터 등이 대안언론으로서 경성뉴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SNS는 시위현장의 생생한 정보와 동영상들을 게재함으로써 정보 확산과 민주화에 기여했고, 세계 언론의 관심과 주목을 받게 되었다. 튀니지의 혁명은 다시 이집트 시위의 도화선이 되었는데 이러한 시위는 젊은 세대<sup>4)</sup>의 부상을 통해 그들의 페이스북 이용이 시위에 생기를 불어넣고 시위자들을 서로 연결할 수 있게 하였다(Stengel, 2011).

정보 확산 영역에서 SNS는 정보 확산의 효율성으로 인해 전통 미디어 이상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Jansen, Zhang, Sobel & Chowdury, 2009). 특히 전통 언론에 대한 신뢰가 낮고 언론통제가 심한 사회일수록 SNS가 전달하는 뉴스정보는 공공매체로서 뉴스 이용자들에게 수용될 개연성이 높다. 가상의 공론장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형성되고 SNS이용자들은 정보생산자로서 그들의 분산된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의 투명화,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집트 혁명과정 중에 페이스북 상에 올려진 시위 관련 글이나 동영상들은 일반인들을 시위에 동참하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으며, 기존 신문과 방송언론의 무능력, 무기력함을 들추어내는 계기가

2) 페이스북은 장문으로도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 맥락형성과 의제논의가 용이한 반면, 트위터는 140자로 제한되는 단문으로 메시지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다. 트위터는 신속성을 기반으로 다량의 정보를 제공하며 리트윗이나 해시태그를 통해 정보확산에 강점이 있다.

3) 2009년 이란선거 이후, 트위터 발 뉴스는 부정선거에 대한 반정부시위와 무력진압 과정을 보도했으며, 시위대의 사망자수를 외부세계로 신속하게 알렸다(황수현, 2009).

4) 이집트에서는 인구의 60%가 25살 이하이다(TIME, 2011).

되었다. 특히 와엘 고нім(Wael Ghonim)<sup>5)</sup>이 운영했던 페이스북 페이지, “우리는 모두 할레드사이드이다(We are all Khaled Said)”는 이집트 혁명을 촉발시키는데 기여했으며(*The Telegraph*, 2011. 2. 11.), 이집트 시위에 관한 정보를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소셜 저널리즘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수립하였다.

**연구문제 1: 이집트 민주화 혁명과정에서 페이스북 페이지, “우리는 모두 할레드사이드이다”는 어떻게 민주화 시위 관련 정보를 생산하고 확산시킴으로써 저널리즘 기능을 수행하였는가?**

## 2) 네트워크 저널리즘과 SNS의 연계효과

네트워크 저널리즘은 뉴미디어와 새로운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뉴스의 생산이 웹 2.0환경에 맞게 시민과 언론인의 협업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뉴스생산양식을 의미한다. 제프 자비스(Jeff Jarvis)는 이제까지 “시민 저널리즘”이라고 명명해온 것들을 ‘네트워크 저널리즘’으로 변경해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네트워크 저널리즘은 이제 저널리즘의 협업적 특성을 강조하는 개념으로서 전문 언론인들과 아마추어인 시민들이 실제 기사를 취재하고 언론사 브랜드를 넘나들면서 상호 연계하는 협업형 저널리즘이다. 네트워크 저널리즘은 뉴스생산과정에서 중점을 두는 저널리즘 양식으로서 SNS를 바탕으로 한 소셜 저널리즘 양식도 포괄한다. 즉 네트워크 저널리즘은 과거 언론사간의 경계를 벗어나 사실들을 공유하고, 의문이나 해설, 사상, 견해들을 시민과 공유함으로써 뉴스를 만들어 가는 복잡한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다(Jarvis, 2006).

SNS시대의 ‘시민저널리즘’이란 용어는 뉴스생산 주체를 ‘시민’만으로 한정짓기 때문에 누구나 저널리즘을 할 수 있는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이러한 행위자 중심의 용어가 프로페셔널 저널리즘의 문제점인 공중으로부터 저널리즘이 분리되는 현상을 오히려 지연시키는 반면, 저널리스트들이 시민으로서 행동하지 않고 있음을 함축한다. 네트워크 저널리즘에서 공중은 보도되기 이전의 뉴스기사 생성에 관여할 수가 있고, 사실과 의문, 제안들을 언론에 제공함으로써 언론인들이 기사를 보도하도록 도울 수 있다. 실제로 언론인들이 시민들과 정보자료를 공유하고 협력하여 기사를 만들 수 있으며, 기사가 보도된 이후에도 공중들은 수정사항이나 의문점들, 다른 사실과 대안적 관점 등을 제시할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SNS시대 네트워크 저널리즘의 특성으로서 이제 저널리즘은 뉴스생산 주체가 시민이나 아마추어 대 전문 언론인들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협력하는 벤처로서 소셜 네트워크 자체로서 새로운 저널리즘 양식이 만들어지고 있다.

네트워크 저널리즘은 최근 전통 미디어들이 소셜 미디어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보다 활발해지는 경향이 있다. 네트워크 저널리즘은 단순히 미디어 공진화 관점에서 소셜 미디어가 기존 미디어의 이용을 촉진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투명화, 민주화 차원에서 파급효과가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소셜 미디어의 신속한 정보 확산 기능은 네트워크 저널리즘에서 그 자체로 언론기능

5) 와엘고нім은 시민운동가이자 구글의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마케팅 매니저이다. 그는 이집트 민주화 혁명의 도화선이 된 <우리는 모두 할레드사이드>라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전국적 시위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한 인물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Wael Ghonim: Spokesman for a Revolution. TIME., Apr. 21, 2011)

을 수행한 사례들<sup>6)</sup>이 많다. 특히 SNS의 정보 확산 효율성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같은 소셜 미디어가 공공매체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게 한다(Jansen, Zjarg, Sobel & Chowdury, 2009).

SNS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이유는 전통적인 미디어를 거치지 않은, 가공되지 않은 정보가 ‘소셜 뉴스’ 형태로 개인과 개인 사이에 직접 전달되고 공중에게 유통된다는 점이다. SNS의 정보 확산 속도는 그야말로 ‘전광석화’(電光石火)에 비유되고 정보에 대한 통제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다(설진아, 2009). 중국의 위구르 사태나 이란의 대선 직후 벌어진 시위상황, 튀니지와 이집트의 민주화 시위가 전 세계에 알려진 것도 SNS 덕분이었다. 이러한 소셜 미디어와 유기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미디어 환경변화에 적응한 뉴스 취재와 보도관행의 변화는 전통언론을 살리는 원동력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SNS는 특히 네트워크 저널리즘에서 취재와 제보의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주류 미디어를 보완할 뿐만 아니라 대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트위터의 미디어로서의 특성을 분석한 한 연구는 트위터의 속보성 이외에도 관계의 비익명성, 메시지의 공개성, 매스 커뮤니케이션과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혼종성 같은 내재적 특성을 강조한다(이은주, 2011, 35~40쪽). SNS는 인터넷 통제 시에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을 즉시 전 세계로 알리며 비익명적 관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원을 주류 미디어들과 공유할 수 있다. 또 주류 미디어에서 보도된 내용들은 다시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다양한 소셜 미디어 서비스를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시민과 언론인의 협업체제를 구체화, 체계화시킨 네트워크 저널리즘은 일반시민이 현장감있는 정보를 SNS를 통해 신속히 전달함으로써 보다 활성화될 수 있다. 또 시민들이 제공한 뉴스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기자가 기사의 흐름을 종합하고 조절하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다. 중동의 민주화 혁명 소식을 전 세계에 알린 알 자지라(Al Jazeera)<sup>7)</sup>의 스트리밍 속보는 SNS를 통한 시민들의 시위정보 제보가 큰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역으로 알자지라의 정제된 뉴스가 다시 SNS를 통해 확산됨으로써 뉴스의 영향력과 파급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네트워크 저널리즘은 SNS와 연계되면서 기존의 시민저널리즘과 상당히 융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SNS는 시민들이 의견을 표현하고, 매스 미디어들이 생산한 뉴스정보를 유통시키며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여론을 수렴하는 공론장 기능도 갖고 있다. 실제로 트위터에서 사회적 이슈를 둘러싼 이용자들의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분석한 연구결과, 일반 이용자들은 소셜 미디어 공론장에서 주체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Hue, Park, & Park, 2010). 더 나아가 SNS는 정부를 상대로 시민들이 반대 의견을 표출하고 시위대를 결성하여 그 결집력을 강화시키는 수단으로써 정치적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김성태외, 2011). 물론 말콤 글래드웰(Malcolm Gladwell)이 주장한 것처럼, 관계고리가 약한 SNS만으로 이집트 혁명이 이뤄진 것은 아니며, 시민들의 강한 정치적 연대는 무엇보다 독재와 부패에 대한 분노, 중산층의 좌절과 빈민들의 절망 등 좀 더 보편적인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다(Gladwell, 2010).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의 약한 유대를 통해서 오랜 기간 평판과 신뢰를 누적한

6) 2008년 5월, 중국 쓰촨성 지진, 11월 몸바이 폭탄테러, 2009년 이란선거 이후 반정부시위 무력진압과정 등과 2009년 1월 미국 뉴욕주 허드슨강 항공기 추락사건 역시 트위터의 위력을 세상에 알린 계기가 되었다. 당시 승객이었던 Janis Krums가 아이폰을 이용해 추락사고 소식을 처음 트위터에 올렸으며, 이는 기존의 CNN과 같은 대형 언론사들이 경쟁할 수 없는 트위터의 속보성과 전파력을 보여 준 사건이었다(이광수 외, 2009).

7) 알자지라는 전 세계에서 6천만 명의 시청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스트리밍 속보로 다양한 플랫폼에 여러 형태의 콘텐츠를 유통시켰다(조희정, 2011, 325쪽).

이용자들이 뉴스정보를 확산시키고 정치적 연대를 위한 매개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일찍이 사회학자 마크 그라노베퍼(Mark Granovetter)는 새로운 정보와 관점에 개인이 노출될 가능성은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로 이루어진 ‘강한 연대(strong ties)’보다는 평소에 그냥 알고 지내는 ‘약한 연대(weak ties)’를 통해서가 더 많음을 그의 연구를 통해 발견한 바 있다(Granovetter, 1973). 따라서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비롯한 SNS는 주류 언론이 심각하게 통제되는 상황에서 바로 이러한 시민들 사이의 약한 연대를 기반으로 새로운 정보를 급속히 전파하는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SNS는 특히 온라인상에서 개개인간 사회 연결망을 실현하고 확장시켜 사회 이슈의 전파와 담론 형성에 보다 효과적인 미디어 역할을 수행한다. 이집트의 민주화 혁명과정에서 페이스북은 시위관련 정보와 해외 주류미디어에서 다룬 뉴스를 평범한 사람들에게까지 이동시켜주면서 사람들이 자신들이 신뢰하고 있는 다른 소셜 네트워크 상의 친구들에게 정보와 의견, 생각을 전달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그 정보는 SNS의 촘촘한 연결망을 타고 전국의 다른 이집트 국민들에게까지 확산될 수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집트 민주화 시위에 관한 정보를 전 세계에 제공한 페이스북 페이지, ‘우리는 모두 할레드 사이드이다’는 어떤 주류 미디어들과 연계되었으며, 저널리즘의 기능을 어떻게 수행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도출하였다.

**연구문제 2: 페이스북 페이지, ‘우리는 모두 할레드사이드이다’는 이집트 민주화 시위정보를 어떤 다른 미디어들과 연계하여 부분적인 네트워크저널리즘을 구현하였는가?**

### 3. 연구방법

#### 1) 분석대상 및 분석기간

이 연구는 소셜 미디어가 저널리즘<sup>8)</sup>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민저널리즘과 네트워크 저널리즘 관점에서 구체적인 한 <페이스북> 페이지의 사례를 통해 뉴스정보의 유형과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집트 혁명과정에서 페이스북은 기존 언론들이 심하게 통제받는 상황에서 시위관련 구체적인 경성뉴스를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 결집과 토론을 통해 의제를 생산하였고, 실제 집회 일시나 장소, 시위규모, 방법 등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특정 페이스북 페이지가 이집트 민주화 시위기간 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뉴스정보를 생산하고 전달했는지, 또 다른 해외 언론매체들과는 어떤 방식으로 연계해 국제적인 뉴스를 이집트 내외로 확산시켰는지 내용분석 방법을 통해 규명할 것이다.

연구대상으로는 이집트 민주화 혁명 과정에서 집합적 여론 형성과 의제 폭발이라는 정치매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진 페이스북 페이지, <우리는 모두 할레드사이드이다(We are All Khaled Said)><sup>9)</sup>를 채택하였다. 내용분석의 단위와 기간은 이집트에서 2011년 대규모 전국시위가 있었던

8) 저널리즘이란 어떤 형태의 뉴스이든 사건과 이슈의 범위, 뉴스의 해석과 분석, 맥락의 측면에서 뉴스가 제시되는 방식에 관한 이슈를 모두 포함한다(Anderson & Geoff, 2007/2008).

9) 이집트 혁명과정에서 SNS의 정치적 영향력은 구체적인 시위참여자수 증가로 연결되었다. 페이스북 “우리는 모두

1월 25일 직후, 해당 페이스북 페이지상에 올려진 개별 포스트를 분석단위로 삼았으며,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일주일 동안을 분석기간으로 선정하였다.

분석기간을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선택한 이유는 전국적인 대규모시위가 있었던 1월 25일 이전과 직후인 26일에는 거의 포스트가 올려지지 않았으며,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위관련 정보와 뉴스들이 포스트로 게재되었기 때문이다. 또 이 시기는 이집트 민주화 혁명 초기로서 1월 27일부터 이집트 정부당국이 인터넷과 휴대폰을 일부 차단했으며, 1월 28일에 휴대폰 정상화와 2월 2일에 인터넷 사용이 정상화됨으로써 미디어 통제가 가장 심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올려진 시위관련 정보와 뉴스는 2월 2일 인터넷 재개 후 페이스북 이용자가 500만 명으로 급증함에 따라 이집트 국내외로 더욱 확산되었을 것으로 간주하고 이 시기를 분석기간으로 삼았다.

아울러 연구초기에는 분석기간을 튀니지 혁명이 성공한 직후 이집트에서 3명의 분신자살이 발생한 1월 17~18일부터 2월 11일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이 퇴진한 날까지 약 3주 동안의 페이스북 포스트 전수조사를 통해 내용분석을 시도하고자 했으나 한 개의 포스트에 수십 개에서 100여 개가 넘는 댓글이 포함되어 있어, 포스트만을 별도로 데이터로써 수집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로 1주일 동안의 포스트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두 명의 보조연구원을 활용하여도 나홀 이상 소요되었다. 개별포스트를 일일이 캡처하여 편집한 후 저장해 출력하였는데 평균 하루치 포스트 및 댓글의 분량이 A4용지 200여 페이지에 달하였으므로, 일주일 동안의 포스트분량은 약 1,000페이지가 넘었다. 따라서 3주간의 포스트를 모두 캡처해 출력하기까지는 데이터 수집기간이 상당시간 소요될 뿐만 아니라 자료가 방대하여 연구기한 내에 연구대상을 심도 있게 분석할 수가 없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분석기간을 1주일로 제한하였으며 자료 수집을 위해 먼저 <우리는 모두 할레드사이드이다> 페이스북 페이지를 검색해 분석기간에 해당되는 자료화면을 모두 캡처로 받아 개별포스트를 분석할 수 있도록 편집과정을 거쳐 파일로 저장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내용분석과 코딩작업을 위해 일주일 분량의 텍스트와 동영상, 사진, URL 등 다양한 자료들로 구성된 데이터 파일에 개별 포스트의 번호를 입력하면서 편집했으며, 이를 인쇄물로 출력하여 개별 포스트의 내용분석을 시도하였다. 전체 포스트에 대한 코딩은 연구자가 단독으로 수행하였으며, 총 포스트 수는 331개였고, 한 포스트 내에 여러 유형과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중복코딩을 허용하였다.

## 2) 분석방법과 분석유목

분석방법은 신문기사의 유형을 분류하는 패터슨(Patterson, 2000)의 기사분석 코드에서 경성뉴스를 구분하는 항목들을 일부 추출했으며, 시소모스(Sysomos)가 조사한 이집트 혁명당시의 특정주제에 대한 해시태그(hash tag) 연구에서 주제어<sup>10)</sup>들을 참조하여 분석유목을 선정하였다. 경성뉴스와 연성뉴스를 분류하는 기준은 김예란(2003)의 연구에서 기사의 유형과 맥락적 프레임 분석코드를 참조하였다. 분석유목으로는 포스트의 기사유형과 기사내용, 맥락적 프레임과 이용자의 상호작용으로 그 구체적 항목은 다음과 같다.

“할레드사이드이다”가 제안한 1월 25일 집회에 8만 5천 명이 참여의사를 밝혔으며, 이집트 당국의 인터넷 재개 이후, 이집트의 페이스북 이용자는 5백만 명으로 급증하였다(조희정, 2011, 321~322쪽).

10) 시소모스(Sysomos) 연구결과, 해시태그 분포를 보면 주로 시위 일시, 지역 및 위치, 인물, 매체 등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www.sysomos.com).



## (1) 포스트의 기사유형

- ① 해설기사<sup>11)</sup>
- ② 주로 해설이고 스트레이트뉴스가 부분적으로 혼합된 기사
- ③ 해설적 요소와 스트레이트 뉴스가 균형적으로 혼합된 기사
- ④ 주로 스트레이트 뉴스이고 부분적으로 해설적 요소가 포함된 기사
- ⑤ 스트레이트 뉴스
- ⑥ 인간적 관심과 기타 신변잡기 내용
- ⑦ 외신보도인용전문
- ⑧ 사진, 만평보도(포토기사)
- ⑨ 동영상
- ⑩ 기타

## (2) 포스트의 기사내용

- ① 시위정보(시위장소, 시위규모, 시위내용 등)
- ② 시위예고 및 참여촉구
- ③ 경찰의 무력 진압, 군대동정
- ④ 무바라크(정부) 비난 및 풍자
- ⑤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인터넷과 이동전화 사용여부에 관련된 내용)
- ⑥ 국제 지지호소
- ⑦ 국제언론 인용(가디언, AP, BBC 등)
- ⑧ 알자지라(Aljazeera)
- ⑨ 페이스북(할레드사이드) 운영 방식 및 설명
- ⑩ 미국 및 다른 국가관련
- ⑪ 기타

## (3) 포스트의 맥락적 프레임

- ① 주제적(Thematic) 프레임: 주로 이집트 시위와 관련한 사회적 의미나 함의를 지니는 광범위한 사안을 다루거나 단일성 사건, 사고를 넘어서는 사회적 추세를 다루는 포스트, 공공이슈를 광범위하고 추상적 맥락에서 다룬 포스트
- ② 복합/양립적/중립적 프레임
- ③ 일화적(Episodic) 프레임: 주로 특정한 시위사건 및 사고 맥락 안에 위치하는 포스트, 특정 사건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포스트

## (4) 페이스북 이용자의 반응

한 사용자가 올린 포스트에 대해 다른 이용자들은 그 포스트를 ‘라이크(좋아요)’하거나 댓글(코멘트)

11) 해설기사는 벌어진 사건, 즉 스트레이트 기사의 내용이 되는 사건에 대한 맥락과 타인의 의견, 사회여론 등을 기자가 수집, 혼합하여 재구성하는 기사이다(김예란, 2003, 53쪽).

를 다는 형식으로 반응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 페이지에서 나타나는 공중의 반응 정도는 개별 포스트에 달려진 이러한 ‘라이크’의 숫자와 코멘트의 숫자를 바탕으로 분석되었다.

총 331개 포스트의 기사유형과 내용, 프레임과 이용자 반응 정도에 대한 코딩을 마친 후 자료를 통계분석 프로그램(SPSS 19)에 입력하여 변인들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추가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개별 포스트의 기사유형과 이용자 반응의 빈도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기사유형은 총 열 가지 형태로 분류되었지만, 이 중에서 1번부터 5번에 해당하는 유형에 대해서 해당 포스트가 핵심적 요소를 포함하는 정도에 따라 이용자의 호응도와 댓글의 수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이는 분석결과에 따라 어떤 종류의 포스트가 공중의 상호작용을 더 촉진시키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포스트에 달려진 모든 댓글에 대한 질적 내용분석이 상호작용의 흐름을 연구하는 데는 가장 이상적일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먼저 실험적으로 양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거기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날 때, 추후 좀 더 심도 있는 질적 분석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였다.

#### 4. 연구결과

<연구문제 1>은 이집트 민주화 혁명과정 중에 페이스북 페이지, ‘우리는 모두 할레드사이드이다’가 시위관련 정보를 어떻게 생산하고 확산시키며 소셜뉴스를 통한저널리즘 기능을 수행하였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첫 포스트가 올려진 1월 27일 오후 6시 56분부터 2월 2일 밤 11시 53분까지 총 331개의 포스트에 대하여 기사의 유형과 내용, 프레임과 반응 정도 유목을 분류하고, 페이지 이용자의 호응(라이크)과 댓글(코멘트)의 정도가 기사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지 알아보기 위해 추가적으로 통계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1) 포스트의 기사유형

분석결과, 페이스북의 <우리는 모두 할레드사이드이다(We are All Khaled Said)> 페이지에 일주일 동안 올려진 포스트들은 사실(facts) 위주의 스트레이트 뉴스가 전체 포스트의 23.4%로 가장 많았고, 동영상(13%), 해설(논평) 기사(10.6%), 사진 및 만평보도(10.4%) 외신보도인용(10%), 해설과 스트레이트 균형(7.3%), 스트레이트위주에 해설 일부(7.3%), 기타(7.1%), 해설위주에 스트레이트 일부(6.2%), 인간적 관심(4.7%)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설과 스트레이트 기사가 혼합된 항목을 모두 합하면 (<표 1> ②+③+④ 참조) 총 20.8%로 스트레이트 뉴스 다음으로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페이스북 페이지가 시위 관련된 정보를 스트레이트 뉴스 형식으로 전달하는데 가장 중점을 둔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결과는 동영상과 사진 및 만평보도가 합쳐서 23.4%로 텍스트 기사 만큼 비중있게 다뤄졌다는 것이다. 기존의 신문저널리즘과 비교하여 특히 동영상을 포함한 포스트들의 경우는 대부분 연결링크(URL)를 소개하고 있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서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었다. 포스트 기사 중에는 시민들이 제공한 동영상과 만평 등이 일부 소개되었으며, 스마트폰을

통해 텍스트와 동영상, 사진 등이 제보형식으로 올려지기도 하였다. ‘외신보도인용전문’에 해당하는 포스트들은 대부분 스트레이트뉴스에 해당되었는데 알자지라와 영국의 가디언 신문이 주로 인용되었다. 사진은 시위장면이 대부분인 데 비해, 만평은 무바라크를 풍자하는 것들이 주를 이루었다.

<표 1> <우리는 모두 할레드사이드이다>의 기사유형 빈도와 백분율

| 기사유형           | 1/27 | 1/28 | 1/29 | 1/30 | 1/31 | 2/1 | 2/2 | 주 합계        |
|----------------|------|------|------|------|------|-----|-----|-------------|
| ① 해설(논평)기사     | 5    | 16   | 11   | 6    | 7    | 4   | 5   | 54 (10.6%)  |
| ② 해설/스트레이트 일부  | 5    | 8    | 10   | 3    | 2    | 1   | 3   | 32 (6.2%)   |
| ③ 해설과 스트레이트 균형 | 2    | 12   | 9    | 5    | 2    | 2   | 5   | 37 (7.3%)   |
| ④ 스트레이트/해설 일부  | 5    | 9    | 7    | 6    | 4    | 2   | 4   | 37 (7.3%)   |
| ⑤ 스트레이트 뉴스     | 9    | 40   | 25   | 12   | 11   | 13  | 9   | 119 (23.4%) |
| ⑥ 인간적 관심       | 0    | 4    | 7    | 8    | 3    | 2   | 0   | 24 (4.7%)   |
| ⑦ 외신보도인용전문     | 1    | 17   | 11   | 5    | 2    | 8   | 7   | 51 (10%)    |
| ⑧ 사진, 만평보도     | 7    | 20   | 9    | 5    | 8    | 3   | 1   | 53 (10.4%)  |
| ⑨ 동영상          | 4    | 15   | 14   | 11   | 8    | 7   | 7   | 66 (13%)    |
| ⑩ 기타           | 1    | 9    | 10   | 5    | 2    | 6   | 3   | 36 (7.1%)   |
| 합계(포스트 수)      | 39   | 150  | 113  | 66   | 49   | 48  | 44  | 509 (100%)  |

## 2) 포스트의 기사내용

개별 포스트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1월 25일 이후 전국적인 시위관련 정보가 모두 35.1%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시위장소와 시위규모, 시위참여자, 시위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30.8%로 가장 많았고, 시위 예고와 참여를 촉구한 내용이 4.3%였다. 다음으로 경찰의 무력 시위진압, 고문, 약탈, 군대의 움직임 등을 비난하는 내용이 18%를 차지했으며,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과 독재정권(정부)를 비난하고 풍자하는 포스트가 14.6%로 세 번째를 차지했다. 다음은 시위관련 보도와 지지를 국내외로 호소하는 내용(9.8%)과 알자지라(5.1%), 국제언론인용(4.5%), 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3.4%) 순으로 나타났다.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에 관련된 포스트는 정부의 인터넷 단절과 모바일 단절 등에 관한 스트레이트성 뉴스가 대부분이었다. 기타(5.1%)에 해당되는 기사내용으로는 ‘축구경기 취소’, ‘과도기 정부 주요인물’, ‘국영TV 오보’, ‘시위 이후 동정’, ‘감사표시’, ‘저널리스트 추방’, ‘디도스공격 반대’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일주일의 기간 중 포스트가 가장 많이 올려진 날은 1월 28일과 29일로 각각 170건과 117건이었으며, 시위정보와 경찰비난 내용이 이틀 동안 총 97건과 63건에 달하였다. 포스트를 올린 시간대를 살펴보면, 1월 28일의 경우, 하루 약 18시간 동안 무려 170건의 포스트 기사를 올림으로써 평균 10분에 한 건씩 기사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소셜 저널리즘의 새로운 보도양식을 보여주었다. 아래의 <표 2>는 날짜별 포스트의 기사내용 빈도를 보여준다.

<표 2> <우리는 모두 할레드사이드이다>의 기사내용 빈도와 백분율

| 기사내용                     | 1/27 | 1/28 | 1/29 | 1/30 | 1/31 | 2/1 | 2/2 | 주 합계        |
|--------------------------|------|------|------|------|------|-----|-----|-------------|
| (장소, 규모, 내용)             | 13   | 58   | 39   | 17   | 15   | 14  | 8   | 164 (30.8%) |
| ② 시위예고 및 참여촉구            | 2    | 8    | 5    | 1    | 3    | 1   | 3   | 23 (4.3%)   |
| ③ 경찰비난(무력 진압, 고문, 군대동정)  | 8    | 46   | 17   | 8    | 5    | 1   | 11  | 96 (18.0%)  |
| ④ 무바라크(정부) 비난, 풍자        | 1    | 13   | 21   | 8    | 14   | 8   | 13  | 78 (14.6%)  |
| ⑤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관련         | 2    | 6    | 3    | 1    | 1    | 5   | 0   | 18 (3.4%)   |
| ⑥ 보도 및 지지호소 (이집트&국제)     | 2    | 12   | 17   | 11   | 5    | 4   | 1   | 52 (9.8%)   |
| ⑦ 국제언론 인용(가디언, AP, BBC등) | 2    | 11   | 4    | 0    | 3    | 4   | 0   | 24 (4.5%)   |
| ⑧ 알자지라                   | 2    | 9    | 6    | 1    | 3    | 4   | 2   | 27 (5.1%)   |
| ⑨ 페이지 목적 및 운영 방식         | 1    | 3    | 1    | 4    | 2    | 2   | 0   | 13 (2.4%)   |
| ⑩ 미국 및 다른 국가관련           | 1    | 2    | 2    | 0    | 2    | 4   | 0   | 11 (2.1%)   |
| ⑪ 기타                     | 3    | 2    | 2    | 10   | 4    | 3   | 3   | 27 (5.1%)   |
| 합계 (포스트 수)               | 37   | 170  | 117  | 61   | 57   | 50  | 41  | 533 (100%)  |

### 3) 포스트의 맥락적 프레임

페이스북 <우리는 모두 할레드사이드이다> 페이지의 포스트들이 전달하는 뉴스의 맥락적 프레임을 분석한 결과, 시위현장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거나 특정한 시위, 진압 사건을 주로 다루는 일화적(Episodic) 프레임이 총 202개로 전체 포스트의 61.4%를 차지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주로 광범위하고 추상적 맥락에서 기사를 다룬 주제적(Thematic) 프레임은 21.6%로 주로 시위와 관련된 광범위한 사안과 자유 쟁취의 필요성, 전반적인 국제지지 호소, 이집트 독재정권의 30년 역사 등 단일성 사건을 넘어서는 전반적인 추세를 다루었다. 또한 일회적 사건을 다루면서도 그것의 배경이나 맥락을 복합적으로 다루거나, 특별히 어느 한 쪽의 프레임으로 구분되지 않는 포스트의 경우도 전체의 17% 정도 있었다. 이 같은 결과는 앞선 포스트의 기사유형 분석결과 해당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단순 경성뉴스(스트레이트)의 형태가 가장 많이 나타난 데서도 추론할 수 있다. 스트레이트 뉴스의 경우 주제적 프레임보다는 일화적 프레임을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아래의 <표 3>은 분석기간 날짜 별로 포스트의 맥락적 프레임의 빈도를 보여준다.

<표 3> <우리는 할레드 사이드이다> 포스트의 맥락적 프레임 유형빈도와 백분율

| 맥락적 프레임         | 1/27 | 1/28 | 1/29 | 1/30 | 1/31 | 2/1 | 2/2 | 주 합계        |
|-----------------|------|------|------|------|------|-----|-----|-------------|
| ① 주제적(Thematic) | 2    | 22   | 10   | 13   | 12   | 8   | 4   | 71 (21.6%)  |
| ② 복합/양립적/중립적    | 5    | 16   | 13   | 8    | 6    | 2   | 6   | 56 (17.0%)  |
| ③ 일화적(Episodic) | 19   | 62   | 51   | 19   | 15   | 18  | 18  | 202 (61.4%) |
| 합계 (포스트 수)      | 26   | 100  | 74   | 40   | 33   | 28  | 28  | 329* (100%) |

\* 포스트의 총수가 329개인 것은 두 개의 포스트가 프레임에 구별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으로 제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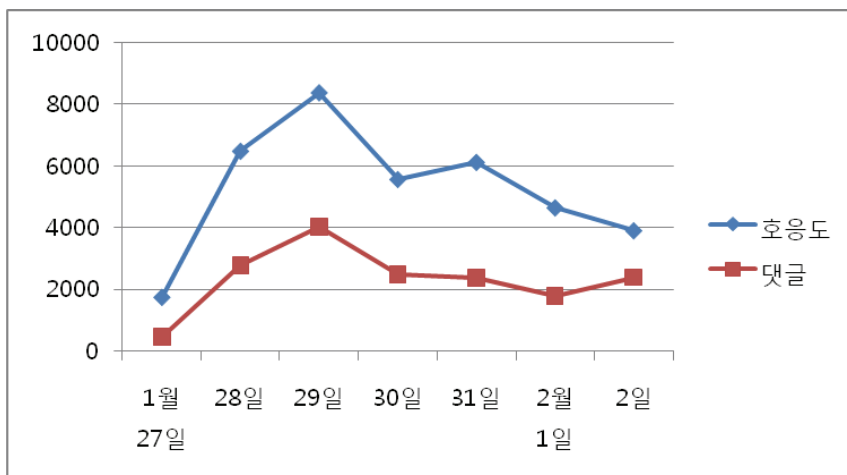
## 4) 페이스북 이용자의 반응

페이스북 상에서 소셜 저널리즘의 특징을 가장 잘 대변하는 부분은 이용자들이 개별 포스트에 대해 일종의 동의와 호응을 표현하는 ‘라이크(Likes: 좋아요)’와 올려진 포스트에 자신의 생각과 느낌, 의견을 덧붙이는 댓글을 다는 ‘코멘트(Comments)’라고 할 수 있다. 온라인 신문의 독자이상의 역할을 수행하는 페이스북 페이지의 친구들(이용자들)은 각 포스트에 대해 선호도를 남기고 적극적인 논평을 통해 상호작용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방대함으로 인해 각 포스트에 달린 코멘트를 모두 열어서 내용분석을 할 수는 없었지만, 일주일 동안의 모든 포스트에 대한 호응도와 코멘트 수만 고려한다고 해도 해당 페이지를 통한 시민운동이 어느 정도의 지지를 받았는지와 이용자들의 상호작용의 규모를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별 포스트의 기사유형에 따라—해설이 어느 정도 포함되었는지에 따라 이용자들의 상호작용의 빈도가 달라지는지도 알아보았다.

먼저 “좋아요”는 총 3만 6천 8백 6명이 기록을 남겼고, 각 포스트에 댓글형식의 코멘트를 남긴 숫자는 총 1만 6천 3백 1건으로 하루 평균 233건의 코멘트가 <우리는 모두 할레드사이드이다>페이지에 남겨졌다.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매일 최대 호응수와 최대 코멘트수를 분석한 결과, 27일(185/65건), 28일(220/105건), 29일(632/152건), 30일(431/379건), 31일(400/188건), 2월 1일(471/162건), 2일(274/285건)으로 나타났으며, 최고의 “좋아요”를 받은 기사는 632건, 최다수의 피드백을 받은 것은 30일의 한 포스트로 총 379개의 코멘트를 받았다. 아래의 <표 4>는 해당 페이지의 날짜별 총 호응도 및 코멘트의 숫자를 보여준다.

<표 4> <우리는 모두 할레드사이드이다> 포스트의 날짜별 호응 및 코멘트 총수

| (4) 호응과 코멘트    | 1/27 | 1/28 | 1/29 | 1/30 | 1/31 | 2/1  | 2/2  | 주 합계   |
|----------------|------|------|------|------|------|------|------|--------|
| 좋아요 (LIKES)    | 1760 | 6470 | 8355 | 5559 | 6112 | 4644 | 3906 | 36,806 |
| 코멘트 (COMMENTS) | 467  | 2780 | 4024 | 2478 | 2384 | 1781 | 2387 | 16,301 |



<그림 1> <우리는 모두 할레드사이드이다> 페이지의 날짜별 호응도와 댓글의 추이

<그림 1>은 호응도와 코멘트의 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날짜별 추이를 보는데 도움을 준다. <그림 1>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호응도의 숫자가 코멘트 수보다는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호응을 표시하는 лай크는 단순 클릭으로 가능하지만 코멘트를 다는 데는 실제 이용자가 글을 입력해야 하는 추가적 노력이 요구됨), 그 둘의 날짜별 추이는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스트들의 구체적인 기사내용을 살펴보면, 최고의 호응을 받은 포스트는 2011년 1월 29일 새벽 4시 55분에 올려진 기사로 “경찰이 철수한 이후, 이집트 박물관이 강도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고 모든 TV채널들이 박물관 침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소문이 퍼지자 수천 명의 이집트사람들이 박물관 주변에 인간 띠를 만들어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나는 이집트인들이 아주 자랑스럽다”라는 내용이었다. “시민들의 승리”를 스트레이트 기사에 간단한 논평을 한 형식의 혼합형 기사였다.

이에 비해 일주일의 포스트 중 코멘트를 가장 많이 받은 기사는 2월 2일 오전 6시 07분에 올린 포스트로서 호스니 무바라크 전 이집트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난 직후에 그를 힐난하는 기사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무바라크: 나 호스니 무바라크는 지난 30년 동안의 나의 행적에 대해서 매우 자랑스럽게 여긴다!!! 업적이란 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죽음을 말하는가? 또 그와 그의 가족 은행계좌에 몇 조원이나 있던 말인가? 그의 정부관료들은 또 어떤가?” 이와 같은 유형의 포스트 논조는 일주일 동안 아주 드문 경우에 해당되며, 대부분의 포스트는 정부나 군대를 비난하는 내용의 경우에도 논조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 편이었다. 따라서 이 포스트의 경우는 무바라크 연설 이후 시민들의 분노를 대변한 논평으로써 높은 호응과 코멘트를 받은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개별 포스트의 기사유형과 시민들의 호응/코멘트 정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즉, 각 포스트에 이용자의 해설/의견이 많이 포함되어 그 논조가 강할수록 그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과 코멘트가 더 활성화되는지 추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포스트의 기사유형과 호응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해설의 비중이 높은 기사일수록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호응도(“라이크”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 = .234, p < .001$ ). 이 분석은 기사의 유형을 해설의 비중에 따라 재분류하여 단순 스트레이트 뉴스(1점: 해설 비중 0%), 스트레이트 뉴스가 대부분이고 해설이 25% 정도인 경우(2점), 해설과 스트레이트뉴스가 50%정도씩 균형적으로 있는 경우(3점), 해설이 75% 정도이고 스트레이트뉴스가 25% 정도인 경우(4점), 그리고 순수 해설기사(5점: 100%)의 5점 척도로 분리하여 이용자가 포스트별로 표시한 “라이크” 숫자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포스트의 기사유형과 그에 대한 코멘트(댓글)의 숫자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어( $r = .183, p = .002$ , 해설의 비중이 높은 기사일수록 이용자들이 더 많은 댓글을 단 것으로 보인다. 이 분석에서 해설과 스트레이트 뉴스 이외의 유형에 해당하는 기사들(예. 신변잡기, 외신보도 인용전문 등)은 제외되어 총 331개 중 278개(전체의 약 84%)의 기사만 분석에 사용되었다.

##### 5) 네트워크 저널리즘과 페이스북의 관계

<연구문제 2>는 이집트의 시위정보를 생산하는 데 있어 페이스북의 <우리는 모두 할레드사이다> 페이지가 해외 주류 미디어와 어떻게 연계함으로써 네트워크 저널리즘을 실현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네트워크 저널리즘은 프로페셔널과 아마추어가 함께 작업해 보다 진실에 가까운 기사를

언는 협업적 저널리즘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사실과 의문, 답변, 아이디어들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공중은 뉴스가 보도되기 이전에 기사의 생산에 관여할 수 있고, 또 보도된 기사를 계속해서 하이퍼링크(hyperlink)로 연결하여 다른 장소와 사람들에게 퍼뜨릴 수도 있다. 페이스북의 경우는 기존 주류 미디어의 이집트 시위관련 보도들을 링크로 연계시키거나 그 보도내용을 직접 인용해 포스팅함으로써 시민들이 계속해서 자국의 시위정보를 접하고, 해외 주류 언론의 기사내용에 코멘트를 남기거나 정보에 대한 수정사항 및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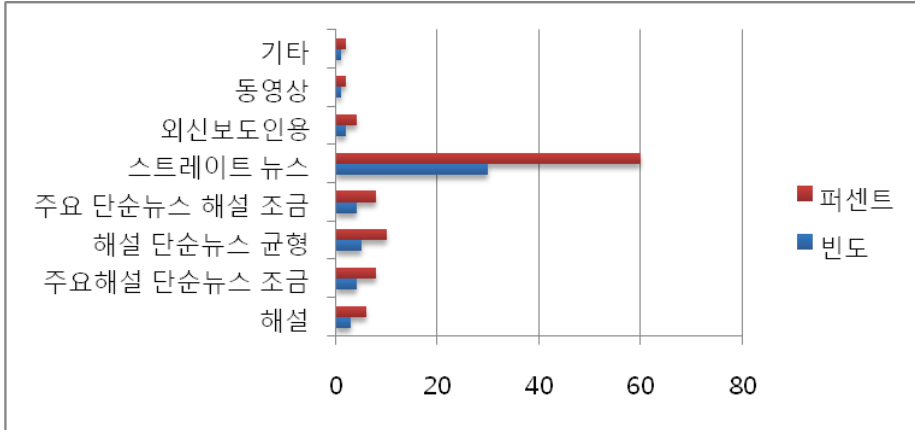
먼저 <우리는 모두 할레드사이드이다> 페이지가 주류 미디어들과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섯 종류의 기사유형을 중심으로 분석해보았다. 그 기사유형을 살펴보면, 동영상만 총 66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사진 및 만평보도(53개)였으며, 국제언론사들과 알자지라가 언급된 경우가 각각 23개와 27개를 차지하였다. 포스트의 기사유형과 네트워크저널리즘(국제언론인용/알자지라)의 관계를 보고자 기사유형별 기사내용의 빈도를 조사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 기사내용의 형태를 중복코딩했기 때문에 한 기사의 경우 최대 다섯 가지의 내용을 담은 사례도 있었다.

<표 5> <우리는 모두 할레드사이드이다>의 네트워크된 기사내용과 유형

| 네트워크 저널리즘            | 1/27 | 1/28 | 1/29 | 1/30 | 1/31 | 2/1 | 2/2 | 주 합계 |
|----------------------|------|------|------|------|------|-----|-----|------|
| 외신보도인용전문             | 1    | 17   | 11   | 5    | 2    | 8   | 7   | 51   |
| 국제언론(가디언, AP, BBC 등) | 2    | 11   | 4    | 0    | 2    | 4   | 0   | 23   |
| 알자지라                 | 2    | 9    | 6    | 1    | 3    | 4   | 2   | 27   |
| 사진, 만평보도             | 7    | 20   | 9    | 5    | 8    | 3   | 1   | 53   |
| 동영상                  | 4    | 15   | 14   | 11   | 8    | 7   | 7   | 66   |
| 합계                   | 16   | 72   | 44   | 22   | 23   | 26  | 17  | 22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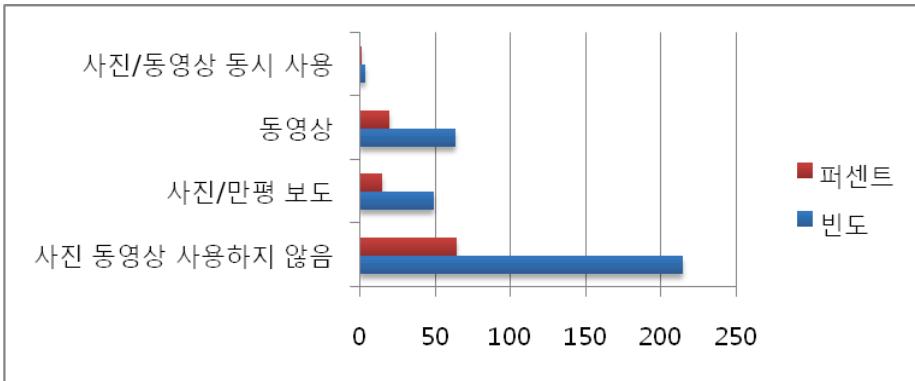
<표 5>에 나타나듯이, 포스트의 기사유형별 내용의 빈도표가 총 다섯 가지<sup>12)</sup> 생성되었는데 이 모두를 종합한 결과, 국제언론과 알자지라를 기사에 인용한 경우는 대체로 스트레이트뉴스의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알자지라를 인용하거나 언급한 경우에 간혹 해설이 조금 들어가거나 해설과 단순뉴스가 혼합된 기사의 형태도 있었지만, 순수한 해설기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할레드 사이드이다>에서 구현된 네트워크 저널리즘은 주로 국제언론과 알자지라의 스트레이트뉴스를 재인용하는 방식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우리는 모두 할레드 사이드이다>에서 구현된 네트워크 저널리즘의 일부로 포스트에 가디언이나 AP, BBC, CBS 등의 국제언론을 인용하거나 알자지라를 언급한 경우는 총 50건 중에 30건(60%)가 스트레이트뉴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설기사와 스트레이트뉴스가 균형적으로 섞여있는 경우가 총 다섯 건(10%)로 그 다음이었으며, 해설이 주요하고 단순뉴스가 가미된 경우와 주로 단순뉴스인데 해설이 가미된 경우가 각 네 건(8%)이었다.

12) 총 다섯 가지의 내용을 담은 기사의 경우는 그 빈도가 극히 적어서 유형별 빈도표를 보는 것이 무의미했다.



<그림 2> 국제언론인용과 알자지라 뉴스의 기사 유형 (총 기사 수 = 50)

네트워크 저널리즘의 또 다른 형태로 판단되는 사진/만평 및 동영상 사용의 빈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 331개의 포스트 가운데 사진이나 만평이 사용된 경우는 총 49건(14.8%)로 나타났고, 동영상을 소개한 경우는 64건(19.3%), 사진과 동영상을 동시에 사용한 경우도 네 건 있었다.



<그림 3> 사진/만평 및 동영상 사용 빈도 (N = 331)





출처: Associated Press Online Video Network video.ap.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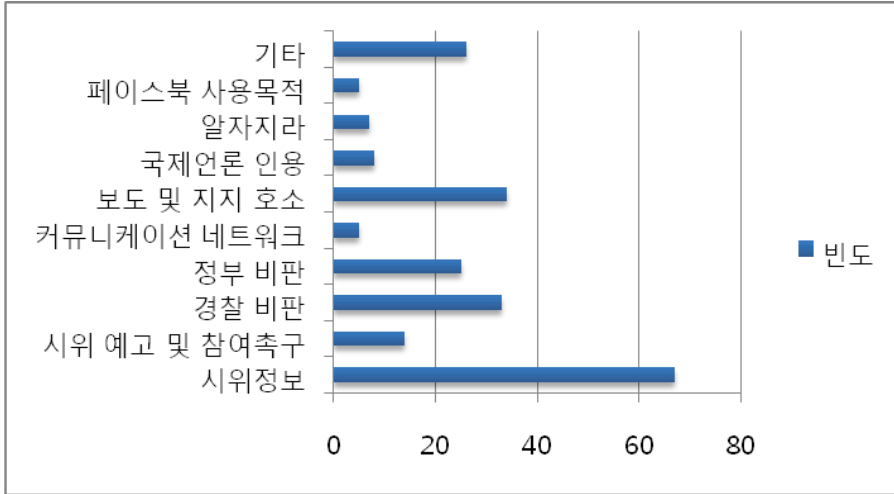


출처: Egyptians are NOT Afraid.m4v gdata.youtube.com

Suez today. Someone just emailed me this photo. January 28, 3:45am

<그림 4> <우리는 모두 할레드사이다>페이지에 올려진 사진의 예

<그림 4>에서 제시된 사진들처럼 <우리는 모두 할레드사이다> 페이스북 페이지는 일반 시민들이 AP 온라인 비디오 네트워크나 유튜브에서 시위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보낸 것을 포스트에 올림으로써 네트워크 저널리즘을 실현하고 있었다. 이처럼 사진이나 동영상이 사용된 포스트의 기사내용을 분석한 결과, 시위에 관련된 정보가 총 67건(29.9%)으로 가장 많았고, 여기에 시위를 예고하고 참여를 촉구하는 내용까지 합치면 총 81건(36.2%) 가량이었다. 이집트의 상황에 대한 보도 및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34건(15.2%), 경찰과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각각 33건(14.7%)와 25건(11.2%)이었다. 사진/만평 및 동영상이 사용된 포스트의 총수는 117건이었으나, 기사내용의 중복코딩을 허용했기 때문에 총 경우의 수는 224건으로 집계되었다. 아래의 <그림 5>는 사진/만평 및 동영상 기사의 내용 항목별 빈도를 보여준다.



<그림 5> 사진/만평 및 동영상 기사의 내용 빈도표 (총 수 = 224)

하이퍼링크로 제시된 사진/만평, 동영상 기사 중에 동영상은 유튜브(gdata.youtube.com) 출처를 밝힌 포스트 건수가 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알자지라 방송은 생방송 자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네트워크 저널리즘에 인용된 해외 주류 언론사들로는 AP(video.ap.org), BBC(bbc.co.uk), CBS(cbsnews.com), NYTimes(nytimes.com), Telegraph(telegraph.co.uk), London Post, The Sun(thesun.co.uk), Aljazeera (blogs.aljazeera.net), Arabist(arabist.net) 등이 포함되었다. 그 밖에도 위키리크스(wikileaks.ch), 트위터픽 (twitpic.com), Rassd(rassd.com), 플리커(flickr.com) 구글의 블로그포스트(blogpost.com), Saynow(saynow.com) 등 다양한 소셜 미디어의 출처가 고르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 5.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우리는 모두 할레드 사이드이다>라는 특정의 페이스북 페이지가 이집트 민주화 혁명 초기의 시위기간 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뉴스정보를 얼마나 생산하고, 네트워크 저널리즘 양식을 통해 뉴스를 전달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내용분석 결과, <우리는 모두 할레드사이드이다>에는 일주일 동안 총 331건의 포스트가 올려졌으며, 이 가운데 시위관련 스트레이트 뉴스가 포스트 내용의 절반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의 포스트 내용은 이집트 자유를 위한 민주화 혁명을 지지하며 대규모 시위에 동참을 촉구하거나 스웨즈, 맨시아, 알렉산드리아, 카이로 등지에서 발발한 시위정보를 구체적인 시위장소와 참여규모, 시위장면, 경찰과의 충돌 및 폭력적인 진압 상황 등을 상세하게 스트레이트 뉴스 형식으로 전달하였다. 주류 언론이 심각하게 통제된 상황에서 이 페이스북 페이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시위가 확산되고 격해지는 경찰의 진압현상을 사진과 스트레이트 보도 기사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함으로써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에게 시위지역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SNS를 통해 확인 요청하는 포스트를 올림으로써 소셜 뉴스생산에 정보원으로서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참여를 촉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페이지는 이집

트의 시위가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의해 조직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었다(2011-1-128,12:31am).

비록 1주일이라는 짧은 분석기간이었지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서 페이스북은 민주화 시위를 이슬람극단주의자들의 소행으로 호도하는 이집트 정부의 거짓선전을 폭로하였고, 30년 동안 이집트를 통치했던 ‘비상계엄령’법의 결과로 인한 고문희생자들의 비디오와 노래들을 동영상으로 올림으로써 이집트 민주화 시위를 더욱 촉발시키는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전국적 대규모 시위가 있었던 1월 28일과 29일 포스트에는 이집트 경찰에 의해 희생당한 8명의 희생자 명단과 시나이 지역에서 사망한 시위자의 이름을 공개했으며, 수백 명이 체포되고 스웨츠를 비롯한 곳곳에서 경찰이 무고한 시위자들에게 총을 발사하는 대량학살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도하였다. 아울러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포스트를 통해 시나이와 스웨츠의 시위가 이집트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으며, 시위자들의 생명과 죽음을 기릴 것이라고 논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스트레이트 기사와 해설을 담은 논평 포스트들은 사진이나 동영상과 함께 제시됨으로써 이용자의 높은 호응과 반응을 끌어내기도 하였다.

네트워크 저널리즘 관점에서 <우리는 모두 할레드 사이드이다>는 영어 페이지를 통해 전 세계에 메시지를 보내 국제적인 지지를 얻고자 했으며, 이용자들이 각국의 미디어에 시위관련 뉴스와 동영상을 공유하도록 촉구하였다. 특히 런던, 파리, 스위스, 미국 등 해외 이집트 대사관 앞에서 행해지는 시위뉴스를 국내로 전달하고, 시위참여를 촉구하며, 페이스북을 통해 해외 거주 이집트인들과 이집트 민주화 혁명을 지지하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에게 국제적인 지지를 호소하기도 하였다. 이 페이지는 가디언이나 BBC, AP, 알자지라와 같은 국제 주류 미디어들의 보도를 인용함으로써 해외 언론이 전달하는 뉴스에 사실을 추가하거나 논평을 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미국정부의 입장을 전달한 가디언 뉴스기사에 논평을 달거나 스웨츠에서 다섯 명이 살해되었다는 스트레이트뉴스를 그대로 인용 보도했고, CBS뉴스비디오가 전달하는 SNS를 통한 이집트 시위상황을 보도하기도하였다. 또한 AP가 이집트 경찰에 의한 시위자 저격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온라인 비디오네트워크상에 발행한 직후 10분 동안 이집트 정부가 인터넷을 완전히 차단시켰다는 속보를 터뜨리면서 페이스북 페이지는 이용자들로부터 들어온 확인뉴스를 포스트로 게재함으로써 네트워크저널리즘의 전형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아울러 출처를 밝히지 않은 이집트 국내 보도를 인용해 시위자들간의 소통을 막기 위해 인터넷과 모바일 네트워크가 중단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존 SNS가 사적 네트워크로서 특정한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개진이 주를 이루고 이에 대한 공중들의 호응을 보여주는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즉 분석대상이 된 페이스북 페이지는 이집트 민주화 시위과정에서 공적 네트워크로서 뉴스와 정보를 전달하는 새로운 소셜 저널리즘의 보도양식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페이스북 페이지가 저널리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무엇보다 이집트 제도 언론사들(신문, 방송)이 극심하게 통제되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즉 이집트의 주류 언론사들은 1월 25일 이후 전국적인 시위상황과 정부의 극렬한 무력진압에 대한 시위관련 현실을 시민들에게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페이스북 페이지가 이러한 뉴스를 스트레이트 기사형식으로 게재함으로써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연구결과는 포스트 유형에서 동영상과 사진, 만평보도의 비중이 높았다는 점이다. 이는 페이스북을 기반으로 한 소셜 저널리즘이 기존 언론과는 차별화되는 멀티미디어적

뉴스 생산요소를 많이 활용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뉴스정보의 신속성과 함께 멀티미디어를 통한 정보의 전달방식도 기존 언론과 차별화되는 부분이었다. 가장 포스트가 많이 올려진 1월 28일의 경우 약 18시간 동안 평균 10분 간격으로 170여건에 해당되는 텍스트와 동영상, 사진들이 올려졌다. “자유, 변화와 정의”를 상징하는 대규모 평화시위에 대한 포스터에서부터 전국 곳곳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현장 및 경찰의 과잉 진압장면, 화제와 평화시위 사진 등이 짧은 기사와 함께 생성, 탑재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시위정보를 일화적 프레임 방식의 보도로 확산시킬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모두 할레드사이드이다>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자신들이 신뢰하고 있는 SNS상의 친구들에게 이집트 시위정보와 의견, 동영상과 사진들을 전국적, 전 세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다. 이집트 당국이 인터넷을 중단했다가 재개한 이후, 이집트의 페이스북 이용자가 5백만 명으로 급증했다는 사실은 이러한 현상을 부분적으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주류언론이 통제된 상황에서 페이스북이 어떻게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저널리즘 역할을 수행했는지, 또 멀티미디어적인 포스트 유형과 뉴스 정보의 신속한 확산이 민주화 운동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다. 비록 자료의 방대함으로 각 포스트에 달린 코멘트를 모두 분석할 수 없었지만, 일주일 동안의 모든 포스트에 대한 호응도(36,806건)와 코멘트 수(16,301)만 고려해도 페이스북 페이지가 시민운동 과정에서 매개한 공중의 지지와 상호작용의 규모를 추론할 수 있었다. 기사유형과 공중의 호응 정도의 상관성을 살펴본 결과, 무바라크에 대한 비난이나 해설의 비중이 높은 기사일수록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이용자들이 의견과 논평이 담긴 포스트를 더 좋아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SNS상의 뉴스 정보가 이용자들에게 신뢰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주리대학교 시민저널리즘 연구팀의 한 조사에서도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그들의 친구들이 올린 뉴스콘텐츠를 전통적인 뉴스 언론사들이 사이트에 올린 콘텐츠보다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ntley, 2008).

한편, 이집트 민주화 혁명에서 페이스북의 역할에 대해 와엘 고님은 “소셜 네트워크가 정보유통의 혁명을 이끌어냈고, 이는 곧 시민들의 집단화된 의식공유와 행동으로 이어져 이집트 혁명이라는 거대한 물결을 만들어 냈다”고 주장하였다(www.texcairo.com). 고님은 페이스북 포스트를 통해 무엇보다 다양한 정보(텍스트, 사진, 동영상 등)의 공유를 강조했으며, 이집트 민주화 혁명은 위키피디아처럼 무명의 시민들이 뉴스생산에 기여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즉 국영방송 및 주류 이집트 언론들이 왜곡보도를 하는 동안, 다수의 시민들이 현장에서 시위장소와 규모, 시위대의 움직임, 경찰의 탄압 및 진압방식 등 작은 조각의 정보들을 페이스북 페이지에 제공함으로써 사실중심의 뉴스생산과 소셜 저널리즘 확산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동영상의 경우는 대부분 연결링크를 소개하고 있어 유튜브와 알자리자, BBC, AP통신사 등 해외 언론사들과 연계되는 소셜 네트워크 저널리즘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었다. 네트워크 저널리즘을 반영하는 외신보도인용은 대부분 스트레이트뉴스에 해당되었는데 알자리자와 영국의 가디언 신문, BBC 등이 주로 인용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치적 격동기에 처한 사회에서 제도권 언론이 통제를 받아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때 SNS는 공적 네트워크 공간으로서 현실에 대한 뉴스나 정보를 생성, 확산시키는 저널리즘 미디어로서 기여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소셜 저널리즘은 페이스북 포스트에 하이퍼링크(hyperlink)로 기존 해외 주류 미디어의 보도내용을 직접 인용해 포스팅함으로써 시민들이 계속해서 자국의 시위정보를 접하고, 해외 주류 언론 보도에도 코멘트를 남기거나 정보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보여준 해외 주류 언론과의 네트워크 저널리즘은 전문 언론인들과 일반시민들이 함께 기사를 생산 하는 협업적 네트워크 저널리즘의 발전 가능성을 시사한다.

2009년 이란혁명에서부터 주목받기 시작한 SNS의 미디어 역할은 2011년 중동지역의 시민혁명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됨으로써 소셜 저널리즘 매체로서의 역할이 드러난 셈이다. 그러나 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SNS를 이용했고, 소셜 미디어가 언론으로서 어떤 기능을 수행했는지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들은 이제부터 시작이라 여겨진다. 특히 SNS가 혁명의 조건이 아니라 ‘가속화’ 조건이라는 연구결과를 보더라도(조희정, 2011), 구체적인 정치적 매개과정이 소셜 저널리즘을 통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는 심층적인 질적 분석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갖고 있으며, 향후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는 소셜 저널리즘과 네트워크 저널리즘 차원에서 페이스북 페이지가 어떻게 뉴스기사를 생산하고 확산시켰는지 기사유형, 기사내용, 맥락적 프레임, 이용자의 반응 차원에서 살펴보았지만 포스트중심으로만 분석함으로써 다른 이용자들이 올린 정보가 어떻게 “소셜화”되어 새로운 스토리로 발전해가며 민주화 운동 국면에 영향을 주었는지 질적 분석을 시도하지 못했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전체 포스팅의 기사 유형과 내용차원을 넘어 어떻게 시민들과 함께 뉴스기사(story)를 만들어 가는지 기사형성 과정을 댓글 분석을 통해 보다 심도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SNS의 네트워크저널리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페이스북 페이지가 시민들이 제보하는 다양한 텍스트와 동영상, 사진 등을 어떻게 취사선택하여 구성해내는지를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요구된다. 즉 SNS이용자들이 기존 언론뉴스를 어떻게 가공하고 엮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내며, 네트워크 상에서 시민과 전문가, 언론인들이 뉴스 생산과정에서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페이스북 페이지의 포스트를 뉴스기사로 간주해 맥락적 프레임을 분석했는데 향후 연구에서는 이집트 민주화 운동 당시의 주제적 프레임을 보다 세분화시켜 시위사건 프레임이나 풍자 프레임, 국제 지지 프레임과 같은 프레임 분석을 시도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이집트 혁명과정에서 페이스북을 비롯한 다양한 소셜 미디어는 소셜 뉴스를 통해 시위에 생기를 불어넣고 시위자들을 서로 연결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기존 언론의 무기력과 무책임함을 표출시켰다. 또 대안 언론으로서 소셜 미디어가 제공한 시위 정보나 동영상들은 아랍스프링 국가의 시민들이 민주화 시위에 동참하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특히 페이스북은 이집트 민주화 혁명과정에서 전국적 시위의 발단이 되었으며, 무바라크 정권이 붕괴되기까지 정보의 공유와 투명화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소셜 저널리즘의 확산은 전통적 저널리즘의 역할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시민들은 표현 매체 수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 정보 분류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기보다 무엇이 진실하고 중요한 가를 가르쳐주는 취재원들을 필요로 할 것이다(Kovach & Rosenstiel, 2001).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주류 언론에 의존하고 있지만, 점차 뉴스의 신뢰도 차원에서 소셜 미디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며, 시민들은 믿을만한 취재원을 점차 소셜 미디어를 통해 찾게 될지도 모른다. 특히 SNS는 사적 공간에서 이용자들이 공적인 뉴스와 정보를 공유, 소통하게 함으로써 주류 언론의 영향력을 더욱 보강, 강화시킬 수도 있다. SNS 이용자들은 무엇보다 정보를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확산하는 주체로서 활동하므로 개별 페이스북과 트위터 이용자가 전달하는 언론의 뉴스기사는 피라미

드 형태의 정보망을 타고 순식간에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통적인 언론과 SNS가 결합되는 소셜 네트워크 저널리즘 양식은 향후 새로운 보도양식으로 더욱 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 참고문헌

- 김성태 · 김여진 · 최홍규 · 김형지 (2011). 뉴스미디어를 통한 소통 채널의 확장과 정치참여변화 연구. 『평화연구』, 19(1).
- 김예란 (2003). 「경성뉴스와 연성뉴스, 그 효용의 실제」, 미디어연구소.
- 설진아 (2009). 소셜미디어의 진화양상과 사회적 영향. 2009 한국언론정보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특별세션, Social Communication Media의 의미와 영향, 한국언론정보학회.
- 오택섭 · 강현두 · 최정호 · 안재현 (2009). 『뉴미디어와 정보사회』, 나남.
- 이광수 · 조연아 · 김성일 (2009). 무선 인터넷 시장 견인의 기대주, 트위터. KT경제경영연구소.
- 이은주 (2011).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트위터 향후 연구의 방향과 과제, 『언론정보연구』, 48권 1호, 29~58.
- 최민재 · 양승찬 (2009). 「인터넷 소셜 미디어와 저널리즘」, (한국언론재단 연구서 2009-01). 서울: 한국언론재단.
- 조영신 (2011). 허핑턴포스트 되짚어보기: 뉴스 미디어의 미래. SK경영경제연구소.
- 조희정 (2011). 2011년 중동의 시민혁명과 SNS의 정치적 매개역할. 『한국정치연구』, 제20집 제2호, 309~338.
- 황수현 (2009.07.14). '트위터 열풍' 그것이 궁금하다. 또 다른 차원의 소통 '트위터'. 『주간한국』, 2281호.
- 황유선 · 이연경 (2011) 전통미디어와 소셜 미디어의 관계에 대한 탐구: 공진화와 혁신 확산 이론의 관점에서, 『방송문화연구』, 제23권, 171~206.
- Benkler, Y. (2006). *The wealth of networks: how social production transforms markets and freedom*.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Bowman, S. & Willis, C. (2003). *We Media: How Audiences are Shaping the Future of News and Information*, *The Media Center at the American Press Institute*.
- Gillmor, D. (2005). The end of objectivity (version0.91), Dan Gillmor on Grassroots Journalism, etc. <http://dangillmor.typepad.com/dangillmorongrassroots/2005/01>
- Gladwell, M. (2010) Small change: Why the revolution will not be quiet (ed.) *The New Yorker* Retrieved August 11, 2011 from [http://www.newyorker.com/reporting/2010/10/04/101004fa\\_fact\\_gladwell](http://www.newyorker.com/reporting/2010/10/04/101004fa_fact_gladwell)
- Granovetter, M.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6), 1360~1380.
- Hue, C. L, Park, S. J. & Park, H. W. (2010), *Political discourse by key Twitterer Political Discourse Sejong City in South Korea*, Complexity Research Network, Seoul.
- Jarvis, J. (2006). Networked Journalism, from <http://www.buzzmachine.com/2006/6/buzzmachine.com/2006/>
- Jansen, B. J., Zhang, M., Sobel, K., & Chowdury, A. (2009). Twitter Power: Tweets as Electronic Word of Mouth.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60(11), 2169~2188.
- John. K. (2011). *Wikileaks Kara Facebook Karumei Made: Gyaku Panopticon Shikai No Tekrai*, 한석주 · 이단아 역 (2011). 『공개와 연대: 위키리크스와 페이스북의 정치학』.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Kovach B. & Rosenstiel, T. (2001). *The Elements of Journalism*. Three Rivers Press, New York.
- Nel, F., Ward, M., & Rawlinson, A. (2009), Gatekeeping and the phenomenon of news content non-journalist Is gatekeeping relevant in online media? [www.theopennewsroom.com](http://www.theopennewsroom.com)

- Newson, A., Houghton, D. & Patten, J. (2009). *Blogging and other social media: Exploiting the technology and protecting the enterprise*, farnham; Gower.
- Patterson, T. (2000). Doing well and Doing good: How Soft News and Critical Journalism Are Shrinking the News Audience and Weakening Democracy-And What News Outlets Can Do About It. [http://www.hks.harvard.edu/presspol/publications/reports/softnews and critical journalism2000.pdf](http://www.hks.harvard.edu/presspol/publications/reports/softnews%20and%20critical%20journalism2000.pdf)
- Peter, J. Anderson & Geoff, Ward(2007). *The Future of Journalism in the Advanced Democracies*, 반현·노보경 역(2008). 『저널리즘과 선진 민주주의』, 반현·노보경 역, 커뮤니케이션북스.
- Stengel, R. (2011). Person of the Year, Time. [www.time.com/time](http://www.time.com/time)
- The Telegraph (2011.2.11). (London). <http://www.telegraph.revolutionarworldnews> “Egypt crisis: the young revolutionaries who sparked the protests”. <http://www.telegraph.co.uk/news/worldnews/africaandindianocan/egypt/8317055/Egypt-crisis-the-young-revolutionaries-who-sparked-the-protests.html>.
- Financial Times (2011.2.9). Google worker is Egypt’s Facebook hero. <http://ft.com/cms/s/0/e41c5faa-3475-11e0-9ebc-00144feabdc0.html#axzz1DfvBdbyf>
- Time (2011). Wael Ghonim: Spokesman for a Revolution. Time, April. 21. 2011, <http://www.time.com/time/specials/packages/article>
- <http://www.sysomos.com>
- <http://ww.tedxcario.com>
- <http://www.facebook.com> <We are all Khaled Said>
- <http://www.elshaheed.co.uk>

(투고일자: 2012. 2. 28, 수정일자: 2012. 4. 25, 게재확정일자: 2012. 5. 2)

ABSTRACT

## SNS and Social Journalism during the Egyptian Revolution: A Case Study of A Facebook Page, 〈We are all Khaled Said〉

Jin-Ah Seol\*

The advent of Social Journalism coincided with the rise of social media to create and deliver news information; as a type of civic journalism, social journalism may be characterized as a new form of information gathering and news reporting which is fed by citizens creating news information through their use social networking services (SNSs). The current study analyzed a Facebook page called, <We are all Khaled Said; WAKS> to determine how this page was utilized during the onset of the citizen movement for the Egyptian democratic revolution to produce news, to facilitate interaction among the public and to deliver the news under the form of networked journalism. Each post uploaded onto the Facebook page from January 27 till February 2, 2011 was coded in its category, content and the contextual frame of the new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during the first week, straight news rather than those with opinions was produced most frequently. The research findings of the current study suggest that in a society of political turmoil, such as in Egypt and other Arabic countries, when the institutionalized media are controlled severely by the government or other forces, SNSs can perform journalistic media roles which create and distribute news information representing facts and reality, and simultaneously facilitate the public's interactions on social and political issues.

Keywords: Civic Journalism, Facebook, networked journalism, social journalism, Social Network Service (SNS)

---

\* Department of Media Arts & Sciences,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